



STORY

# 02

물길 따라 바람 따라  
실려 온 이야기

## 북구의 산봉우리

북구를 두르고 선 금정산과 백양산은 능선마다 늘어선 봉우리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계절마다 꽃으로, 녹음으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산자락에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봉우리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북구의 오랜 옛이야기도 빼곡히 간직하고 있다.

### 금샘과 고모당의 전설이 깃들다, 금정산 고당봉

부산이 사랑하는 명산(名山)인 금정산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산세는 크지 않지만, 곳곳에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골마다 맑은 물이 샘솟는다. 자연이 빚어낸 화강암 절벽은 산을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금정산이라는 이름은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금샘(金井)설화에서 유래한다.

‘산꼭대기에 돌이 있어 높이가 3장(丈) 가량이다.

그 위에 샘이 있는데 물이 늘 차 있어

마르지 않으며 색이 황금과 같다.

한 금빛 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샘에서 놀았으므로

산 이름을 금정산(金井山)으로 하였다’



금정산 고당봉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은 낙동강 지류와 동래구를 흐르는 수영강을 나누는 화강암 봉우리다. 고당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장군봉, 동쪽으로 계명봉, 서쪽으로는 장골봉과 남쪽으로 상학산 등 많은 봉우리가 솟아나 있다. 금정산 고당봉 아래 북문재에서 발원하는 대천천은 북구를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온다.

고당봉에는 범어사의 수호신인 고당할미를 모시는 고모당이 있다. 《범어사서기괘유전》에는 고모당에 얹힌 밀양 박씨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범어사는 왜군들에 의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만다. 불타 버린 범어사 앞에서 스님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밀양 박씨 성을 가진 여인이 찾아와 불가에 귀의해 스님들의 수발을 들어가며 갯더미가 된 범어사의 재건을 돕는다. 어렵게 절 살림을 꾸려가던 어느 날, 그녀는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죽으면 고모당 아래 고모영신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 고모제를 지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범어사의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박 씨의 사후, 주지스님은 박 씨의 말대로 고모제를 지내 주었고 그 후로 범어사는 나날이 사세가 번창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모제는 일 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음력 5월 5일 단옷날 정오를 전후해 드린다. 지금도 고모당에 있는 기도터에는 저마다의 소망을 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첫 새벽빛이 내리다, 상학산 상계봉

대천 계곡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고당봉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정산 봉우리 중 하나인 상학산이 있다. 상학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풍수지리적으로 학의 형상을 하고 있다. 상학산이 학의 본체가 되고 양 날개인 좌우 봉우리가 화명 쪽으로는 화산 암봉, 만덕 쪽으로는 병풍암 능선으로 뻗어 내린다. 학의 머리는 화명 수정마을의 강변 쪽, 과거 학사대가 있던 학성산이다.

상학산은 오랜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크고 작은 기반암이 수려한 경치를 자아내는 곳으로, 정상에 서면 낙동강 물줄기는 물론 저 멀리 드넓은 김해평야와 김해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상학산에는 그 생김새가 마치 닭의 벅을 닮았다 해서 상계봉이라 불리는 봉우리가 있다. 상계봉은 상학산 부근에서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로, 새벽이 다른 곳보다 먼저 찾아온다 하여 해돋이 장소로도 유명하다. 만덕1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새해 첫날 상계봉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와 함께 송구영신을 기념하고 구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상학산 상계봉

산 정상에서 보면 낙동강 물줄기는 물론 저 멀리 드넓은 김해평야와 김해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상계봉은 특히 오랜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크고 작은 기반암이 수려한 경치를 자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 구포의 주산, 백양산 주지봉

높이 642m의 백양산은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를 아우르며 그 경계 역할을 한다. 그중 구포와 만덕을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뻗어있는 주지봉은 그 모양새가 마치 거미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하여 거미 주(蛛)자와 거미 지(蜘蛛)자를 따 붙인 이름이다. 이 외에도 봉우리가 셋이라 삼형제봉,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낙타봉, 과부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여 과부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구포 사람들에게 주지봉은 오래전부터 친숙한 공간이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면 “주지뽕이 간다.”라고 말하곤 했으며, 주지봉 아래 대리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지낼 때면 꼭 주지봉의 산신께 먼저 마을의 태평을 빌었다고 한다. 주지봉 능선의 종발산 주변에는 구들돌이 많이 나왔는데, 1950년대에 부산에서 도로를 포장할 때 이 자갈돌들을 이용하면서 지역에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산꼭대기까지도 차가 오르내렸다고 한다.

## ‘구포(龜浦)’의 시작, 범방산

백양산의 본줄기는 운수산을 거쳐 사상 쪽으로 뻗어 내리는데, 이와는 별개로 운수산에서 강변 쪽으로 낮은 줄기를 이루고 있는 산이 있다. 바로 구포의 상징인 범방산이다.

과거 범방산은 범바위가 있는 호암골(虎岩谷)이 있어 범바위산이라고 불렸다. 이를 한자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음차만 가져와 범방산이 된 것이다. 한편 범방산의 한자를 풀이하면 ‘뜰 범(泛)’에 ‘배 방(舫)’으로서 배가 정박했다가 뜬다는 뜻이 담겨 있다. 범방산은 낙

동강을 끼고 구포와 사상을 아우르는 지형을 갖추고 있어 예부터 큰 나루터가 두 군데나 있었다. 한 곳은 남창이 있던 구포의 감동진이고 다른 한 곳은 일본과 교역을 할 때 왜의 사신을 실은 배가 정박하던 사천원 수참 나루터다. 이 두 나루터를 끼고 들어선 산이기 때문에 범바위산의 이름을 범방산이라 옮기게 된 것이다.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모양새가 마치 거북이가 강을 향해 엮린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모라에서 구포로 이어지는 산 능선이 거북의 몸통이고 구포초등학교 뒤쪽으로 화강암 바위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돌을 이고 있는 거북의 머리다. 그 뿐만 아니라 정상에는 거북이가 산을 향하여 목을 내밀고 있는 듯한 거북바위가 있어 구포의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거북이 형상을 한 산줄기에 거



범방산에서 바라본 구포 전경

북바위까지 있어 구포 사람들은 이 산을 거북산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거북 구(龜)’자를 즐겨 사용하는 구포의 지명 유래를 범방산에서 찾는 것이다.

범방산은 최근 나무데크로 이어진 구포무장애숲길을 조성하면서 노약자, 장애인들도 힘들이지 않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만든 것이다. 산 능선을 돌아 길을 내느라 산을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덕분에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느리지만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해나가는, 거북이(龜)라는 지역 이름에 어울리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

## 북구의 강과 하천

북구는 낙동강 수로 교통의 중심지로 나루터가 번창했던 곳이다. 하천의 범람으로 북구는 수많은 여름을 물난리로 보내야 했으며 물길마다 하나씩, 오랜 시간 전해져 온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골짜기마다 모인 물은 저마다의 길을 따라 계곡이며 하천으로 흘러들어 북구 사람들의 삶을 씻어내 주었다. 북구의 시간과 이야기는 강물과 함께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300리를 흘러온 역사의 물길, 낙동강과 북구

북구는 낙동강의 하류에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의 하류는 강물이 느리고 완만해 과거엔 안동까지도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덕분에 북구에는 나루터가 발달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영남지방 내륙수로교통의 중심 길이 될 수 있었다.

서부산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은 해 질 녘에 강물과 하늘이 짙은 붉은빛으로 물드는 일몰 광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낙동강에 접해 있는 화명생태공원이나 구포대교에서도 매일같이 붉은 장관이 펼쳐진다.

한편 북구는 강줄기가 아닌 또 다른 ‘낙동강’을 세상에 내놓은 곳이다. 광복 직후인 1946년, 구포에 낙동강주조주식회사가 들어서면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인 ‘낙동강 소주’가 구포양조장에서 생산되었다. 회사에선 소주의 이름에 걸맞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 일간신문에 노래 ‘낙동강’의 가사를 응모하는 공모전을 열었다.



노을 지는 낙동강

원고 심사는 김정한, 정진업, 이주홍, 장하보 등 부산의 문인과 언론인들이 맡았다. 당선된 가사에 음악인 이상근씨가 곡을 덧입혀, 마침내 노래 ‘낙동강’이 완성되었다.

서라벌 옛 터전을 적시어 주던  
가람은 세월 따라 끝없이 흘러  
갈대에 나부끼는 두덩을 메고  
장기에 날을 세워 옥토를 갈던  
겨레의 자손들이 여기에 산다.

흘러라. 아 - 굽이쳐라.

바다로 가자!

어머니의 젖가슴인  
낙동의 강아, 낙동강의 강아!

가사가 새겨진 악보는 소주와 청주 술병에 하나하나 인쇄돼 팔려 나갔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온 피란민들은 낙동강 소주 한 잔에 아픔과 시름을 달래곤 했다.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시인 김수영과 박인환의 평전, 황순원의 소설 <별>에서도 낙동강 소주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는 쓰디쓴 삶의 맛, 아마도 ‘낙동강 소주’의 맛과 다르지 않았으리라.

### 애기소의 전설이 깃든 곳, 대천천

대천천은 화명에서 금정산성마을로 올라가는 산길을 따라 흘러, 대천마을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본래의 이름은 ‘금정산수’지만 화명동을 지나는 큰 강이라는 의미에서 ‘대천천’이라 불렸으며, ‘화명천’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애기소 폭포와 계곡이 있어 해마다 여름이 되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애기소는 도시 한가운데에 고맙게 자리한 아름다운 계곡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물이 깊어 폭포 밑으로 들어가면 헤엄쳐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폭포 밑 암벽에 이심이라는 전설의 물고기가 굴을 뚫어 놓고 살았기 때문이라 하여 이심이소라고도 불렸다.



대천천

애기소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전해진다. 옛날 화명 일대에 젊은 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결혼 후에도 태기가 없어 고민을 하다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그들은 기도할 장소를 찾아 계곡을 거슬러 올랐고, 넓은 못이 나오자 그 옆 너럭바위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기로 한다. 백 일째 되는 날, 부부 앞에 선녀가 나타나 원래 부부는 아기가 없을 운명이나 정성이 가득하여 아기를 점지해 주겠다고 말한다. 단, 삼 년 뒤 다시 아이를 데려 가겠노라 덧붙였다. 부부는 당장에 아기를 얻을 생각에 알겠다고 답했고 그 이듬해에 정말로 아기를 얻게 된다.

부부는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지만, 마음 한 구석에 선녀가 아기를 데려갈 거라는 무거운 불안 또한 느끼고 있었다. 부부는 아기를 사립문 밖으로도 내보내지 않고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렇게 삼 년이 지나도 아기가 무사하여 보이자 아내는 또 한번 정성에 감동하여 아기를 살려준 줄 알고는 선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못을 다시 찾는다. 아내는 아기를 너럭바위에 잠시 얹혀둔 채, 다시 찾은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다. 그런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울며 찾아 헤맸지만, 아내는 결국 아기를 다시 찾지 못했고 그 뒤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가 빠져 죽은 소라고 하여 애기소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전설 속에는 애기소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 녹아 있다. 선녀가 나타날 만큼, 그리고 아기가 물에 빠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계곡의 경치가 수려하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 이후, 대천천은 방치된 사토장 등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금정산,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지 못하고 단절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구청이 기획한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대천천 주변 지역은 새 단장에 힘쓰고 있다.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산성로 연결 산책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천천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북구 녹색 관광지구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가야인의 그리움이 어리다, 대리천

대리천은 불태령고개와 백양산에서 흐르는 물이 대리마을로 흘러들어 구포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시 하천이다. 상류에는 시랑골 폭포, 정새미 폭포, 참새미 폭포 등이 있고 하류에는 소당폭포가 있다. 지금은 물줄기만 겨우 남아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과거에는 시원한 폭포의 청량한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소당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개울 위쪽에서부터 암반 사이로 물길이 흘렀다. 개울 동쪽 언덕 위에 오르면 멀리 김해와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소당폭포 암벽엔 모분재(募盆齋)라고 새겨진 글귀와 함께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에는 신라가 서쪽에는 가야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낙동강을 둘러싸고 일진일퇴했던 길고 긴 싸움은 결국 가야의 멸망으로 끝이 났다. 나라를 잃은 가야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혹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살았다. 이곳 대리천이 흘러내리는 언덕 위에도 시랑(侍郎) 벼슬을 했던 가야 사람이 피신해 살게 되었다.

그는 멀리 김해평야가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 송우정(送友亭)이



모분재 글귀가 새겨진 암벽이 있었던 옛 소당폭포

라는 정자를 지어, 해마다 나라가 망했던 날이면 옛날 같이 벼슬했던 사람들을 모아 망해 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며 재(齋)를 올렸다고 한다. 바위에 새겨져 내려오던 모분재(募盆齋)라는 글귀 속에는 가야의 중심 근거지인 김해의 분산(盆山)을 잊지 못해 재(齋)를 올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소당폭포에는 현재 상층부의 암벽이 깨져 없어지고 다리가 놓였으며, 주변은 주택단지로 변한 상태다. 다리를 놓고 독을 쌓으면서 모분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던 암벽은 사라지고 흐르는 물도 폐수에 가까워 이곳이 그토록 아름다운 경치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시랑로, 모분재로 등 관련 지명들만 현재까지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아득히 기억할 뿐이다.

한편 구포는 주변의 산이 높고 낙동강 물길의 끝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매년 물난리가 심한 지역이었다. 이곳 대리천도 장마철만 되면 쉬이 범람해 주민들은 늘 어려움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조 9년 당시 양산 군수였던 이유하가 제방을 쌓는



공사를 실시했는데, 농번기가 끝나 남은 일손들을 모아 작업을 하곤 했다. 제방이 완공된 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리마을 입구인 비석골 고갯길에 비석을 세웠다. 이후 지하철 공사로 인해 현 구포1동주민센터 앞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구포대리천제방쌓기'라는 민속놀이의 형태로 제방공사를 재현하고 매년 비석 앞에서 추모제를 올림으로서 이유하의 선정을 기념하고 있다.

### 상계봉과 낙동강을 잇는 물길, 덕천천

덕천천은 만덕 상계봉에서 발원한 탓에 만덕천, 혹은 만덕계수로도 불린다. 의성마을, 숙등마을, 남산정마을 등 북구의 오랜 삶터들을 아우르는 이 물길은 만덕고개를 지나 덕천역 부근에서 대리천과 합류해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덕천천의 상류에는 산비탈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중류와 하류의 복개된 하천 구간에는 동래에서 만덕고개를 넘어 낙동강으로 향하는 도로가 놓였다. 하류 부근에 이르면 평지가 나타나는데, 이곳은 유독 침수피해가 잦은 곳이었다. 덕천천이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곳의 강바닥이 낙동강 본류보다 낮기 때문으로, 1984년과 1986년 그리고 1989년 홍수 때 덕천동과 구포시장 일대가 온통 물바다가 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덕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호우 시 덕천과 구포 일대에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한편, 덕천천과 대리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덕천유수지는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비가 올 때마다 일

대의 생활 쓰레기와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쳐 골치를 썩이곤 했다. 그로 인한 낙동강 수질 악화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청은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해 마을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개방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만덕에 백양산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근에 흐르던 덕천천도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하천을 따라 나무데크길과 자갈길도 깔끔하게 조성되어 봄 벚꽃이 만개할 때에는 분홍 융단 길을 거닐 수도 있다. 이 길을 따라 오르면 백양산 등산로가 또 다른 자연으로 안내한다. 물길로 숲길로, 발 딛는 곳마다 길을 내어주는 북구의 자연이 새삼 놀랍다.

### 낙동강, 우리네 삶과 이야기를 품다

강은 인간 삶의 젖줄이요, 희로애락을 품은 이야기 창고다. 낙동강 또한 수많은 사람의 애환을 품고 오랜 세월을 흘러왔을 터. 때문에 이를 담아낸 문학 작품도 적지 않다. 대저와 구포역을 무대로 한 조명희의 '낙동강'(1927), 낙동강 하구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을 다룬 요산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1966)가 대표적이다. 1981년에 이문열이 발표한 '하구'나 1994년 발표된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등의 작품 속에도 낙동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2013년에는 낙동강 하굿둑과 명지를 배경으로 한 김언수의 '하구(河口)'가 발표되기도 했다.

## 북구의 누대

산을 감싸고 강을 두른 북구는 어디든 담고 서면 아름다운 조망이 펼쳐지는 곳이다. 펼쳐진 자연 속 바위와 구름, 산을 보고 있노라면 북구는 자연 그대로를 접할 수 있는 전망대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쪽빛으로 노을빛으로, 때마다 자연을 닮은 색으로 물들던 북구의 곳곳에는 선인들의 풍류와 노래가락이 머물던 공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과거 삼칠루가 있었던 현재의 구포 동원로알듀크비스타 아파트 자리

### 칠점산과 삼차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삼칠루

大水三分去 큰 강물 세 갈래로 흐르고  
孤山七点浮 작은 산 7개가 평야에 떠 있는 듯

양산 군수 안연석이 삼칠루에서 내려다본 경관에 감탄하며 쓴 시의 한 구절이다. 안연석뿐 아니라 많은 양산 군수들이 삼칠루에서 내려다보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영감을 얻어 시구를 남기곤 했다.

시에서 말하는 강물(大水)은 낙동강 하류를, 작은 산(孤山) 7개는 김해의 칠점산을 말한다. 긴 세월 강물이 실어온 토사는 바닷물을 밀어내 김해지역에 삼각주를 만들었고 강물의 흐름을 세 갈래로 갈라놓았다. 이를 삼차수(三叉水) 혹은 삼차강(三叉江)이라 하는데, 옛 이야기꾼들이 지어낸 전설에서 비롯됐다. 한충이란 이가 꿈에 천상에서 삼차(三叉, 세 가닥 비녀)를 얻었는데, 깨어나서 이 강에 던졌더니 강물이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것이다.

옛 구포 강변의 남창(南倉)이 있던 언덕 위로는 박석골이라는 고갯길이 있었다. 이곳은 세 갈래로 흐르는 낙동강의 흐름과 칠점산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었다. 숙종 19년인 1693년 양산 군수로 부임한 권성규는 칠점산과 삼차수가 보이는 이 언덕 위에 누각을 세우고 삼칠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낙동강의 고요한 물결과 멀리 칠점산의 일곱 봉우리가 한 폭의 그림 같았던 이곳은 아쉽게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 북구의 절경을 한 눈에 조망하다, 의성대

의성대는 학사대, 조대와 함께 경관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북구의 3대 누대 중 하나다. 학사대와 조대는 바위만 흔적으로 남았을 뿐, 화명 일대 신시가지 조성 과정에서 옛 경관을 모두 잃고 말았



의성산 구룡사에서 바라본 구포의 모습

다. 하지만 의성대만은 구포왜성의 터로서 보존되어 아직 옛 모습을 지키고 있다.

의성대는 해발 70여m의 작은 산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의성대에 올라서면 금정산 고당봉과 상학산 상계봉, 백양산 주지봉 등 북구를 둘러싼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양산의 물금에서 호포를 거쳐 사상, 하단 쪽 하구로 흘러가는 낙동강 물길이 펼쳐 보이는 이곳이야말로 자연이 만든 뷰포인트라 할 수 있다.

성터 남쪽에 자리한 구룡사는 의성산에 있는 절이라 하여 의성절이라 불리기도 한다. 과거 의성산 왜성터에서 왜구들과 싸우다가 순절한 황룡 장군이 용으로 승천해 산 정상으로 올라간 흔적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용왕샘이 있는 절이기도 하다.

남해고속국도 공사로 산자락이 절단되면서 지금의 의성산은 구포왜성의 본성이 있는 큰 산과 북구문화빙상센터 자리인 작은 산으로 나누어졌다. 현재는 아치형 육교인 ‘북이희망교’가 두 공간을 이어주고 있다.

## 풍경과 이야기를 간직하다, 학사대

금정산 상학봉은 그 모양새가 마치 학의 모습을 닮아서 이름이 붙은 봉우리다. 학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학성산인데, 학성산은 과거 화명동 수정마을의 철길 건너편 강가에 있던 30m높이의 야트막한 언덕이다.



김재진의 시구가 새겨진 학사대 바위

이 학성산의 정상에 학사대가 있었다. 선비들은 이곳에 모여 금정산자락과 펼쳐진 낙동강의 경관을 바라보며 시구를 읊곤 했다. 조선 시대 예조 좌랑 김재진이 학성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에 감탄하며 쓴 시는 아직도 학사대의 바위에 새겨져 있다.

학성산 앞 수정마을 인근에서는 유독 붉은빛이 도는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학성산을 학의 머리, 상학봉을 몸통, 화명과 만덕을 날개로 본다면 수정마을은 학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수정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가 가설되면서 학의 목이 잘려나가 거기서 흘러내린 피가 주변의 바위들을 붉게 물들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학사대에 관한 또 하나의 전설로는 윤씨 묘 전설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200년 전 용당마을의 파평 윤씨 가문에 이웃 마을의 임씨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우연히 사랑방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내용인즉 용당의 학사대에 조상 묘를 쓰면 자손들이 성공하고 신분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씨 며느리는 이곳을 친정 묘로 쓸 것인가 시댁 묘로 쓸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후손을 위해 이곳을 시아버지 묘를 쓸 것을 결심한다. 하지만 이곳 학사대가 명당이란 소문은 윤씨 집안 문지방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많은 사람이 이곳을 탐내기 시작한다. 이에 며느리는 피를 내어 밤마다 몰래 학사대 앞에 물을 부어 물웅덩이로 만들어 버린다. 웅덩이에 묘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며느리는 이곳에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윤씨 가문은 나날이 번성해갔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구포에서 말을 타고 학사대 윤씨 묘 앞을 지날 때마다 타고 가던 말의 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윤씨 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는 소문과 묘를 한 자만 옆으로 옮기면 괜찮아 질 것

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다. 소문에 혹한 윤씨 가문은 결국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무덤을 파헤친다. 무덤을 거의 다 뚫을 때쯤 갑자기 땅 깊숙한 곳에서 학 한 마리가 휙 하며 날아오르는 게 아닌가. 학은 끝없이 높이 오르더니 지금의 부산어촌민속관 자리인 울등덕으로 날아가 버린다. 이 때부터 윤씨 후손들의 상승세가 멈추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한낱 전설일 뿐, 파평 윤씨의 번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용수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산이 없어진 것은 아쉽지만, 김재진의 시구가 새겨진 학사대바위만은 화명동 현충근린공원으로 옮겨져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위안이 되고 있다.

## 옛 삶의 자락이 머물다, 조대

화명 수정마을은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로는 금정산이 펼쳐지며 이를 둘러싼 넓은 평야가 자리하고 있어 예부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특히나 강변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그

야말로 장관이었다. 학사대 외에도 여러 누대와 이 곳을 감상하기 위한 여러 문화유적이 존재했다고 한다.

마을 근처 언덕인 조대도 그 중의 하나이다. 과거 조대에는 ‘조대 주인 임경택(釣臺主人林景澤)’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바위

임경택의 이야기가 새겨진 조대 바위





가 있었는데, 조대의 주인인 임경택은 이괄의 난 당시 전사한 공신 임희의 6대손이었다. 임경택이 효성이 지극하고 자잘한 이익에 한 눈팔지 않는 올곧은 성품으로 일대에서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기에 그가 평소 낚시를 즐기던 강변의 언덕 위 붉은 바위에 이와 같은 문구를 새긴 것이다.

많은 문화유적지와 마찬가지로 조대 언덕 역시 개발로 인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조대바위 또한 안타깝게도 철도 공사 중 철거되었다. 다만 임씨 문중에서 글귀가 새겨진 부분만 절개해 수정마을 공원에 옮겨 놓은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 후손들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조대를 통해 떠올리던 옛 화명동 낙동강변의 아름다움과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소소한 삶들이 그저 잊혔을지 모를 일이다.

- **옛 삼칠루 터** : 북구 낙동대로 1738번길 10 동원로알듀크비스타
- **의성대** : 북구 금곡대로 66-19 구룡사 일대
- **학사대바위** : 북구 금곡대로 229번길 88 용수중학교 앞 현충근린공원 내
- **조대바위** : 북구 학사로 17번길 14 방송통신대 옆 수정근린공원 내

## 북구의 바위

빛물이 깎아 내고 바람이 매만져, 바위는 저마다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금정산과 백양산 자락의 수없이 많은 바위들, 자연의 손길로 빚어져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저마다의 사연들. 북구 바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 범방산 거북바위

범방산 거북바위는 영락없이 거북이가 머리를 쳐들고 산을 기어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구포의 상징이 된 거북바위 외에도 범방



범방산 거북바위



범방산 정승바위

산에는 다양한 모양새와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닌 특별한 바위들이 있다.

먼저 무장애숲길 전망대에 있는 정승바위는 바위 모양이 꼭 네모진 상모를 쓴 사람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재밌는 것은 그 이름대로 정승바위가 거북바위를 향해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

고 있다는 것이다. 예부터 거북이가 황제를 뜻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승바위라는 명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의 짝꿍바위, 마치 칼로 자른 듯 반듯한 모양의 절편바위, 여성의 성기를 닮은 음기바위 등도 범방산의 명물이다.

### 구포 두꺼비바위

범방산에서 서쪽 강변으로 뻗어 내린 곳에 야트막하게 솟아오른 산, 그 아래 철로 변에 두꺼비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자연석임에도 두꺼비 형상의 눈과 턱이 분명히 드러나 보여 마치 사람이 일부

러 조각해 놓은 듯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집채만 한 큰 바윗덩어리가 두꺼비 몸체를 제단처럼 받치고 있어 바위에서 위엄마저 느껴질 정도다.



구포 철로변의 두꺼비바위

구포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겨 왔다. 과거 배를 타고 구포지역을 드나들던 외지인들조차도 두꺼비바위에서 무탈한 항해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곳을 얼마나 신성한 곳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이후 철로가 바위 앞으로 가설돼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엄청난 크기의 두꺼비바위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구포의 명물이 되었다.

두꺼비바위는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바위 주변에 공군부대의 기름 탱크가 설치되고 보안유지를 위해 담장이 쳐지면서, 흙 속에

파묻혀 볼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현재 구포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땅속에 잠들어 있던 두꺼비바위를 복원해 놓았다. 실제 두꺼비의 삶처럼 땅속에서의 짧은 겨울잠을 끝내고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 백양산 낭바위

백양산 인근에는 널찍하고 평평한 바위가 있다. 그 일대가 옛날 신라의 화랑들이 말을 타고 훈련을 하는 별판이었기 때문에 화랑의 랑(郎)을 써서 낭바위라고 했으며 그 모양이 마치 옷을 넣는 농(籠)과 같다 하여 농바위로도 불렸다. 먼 옛날 천지가 개벽하면서 큰 홍수가 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속에 잠겼지만, 이 바위만 농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구포 사람들은 가뭄이 심하면 꼭 이 바위에 찾아와 제사를 차리고 기우제를 올렸다. 소나무를 베어 불에 태운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 닿으면 3, 4일 후에는 꼭 비가 왔다고 한다.

### 상학산 닭벼슬바위

상학산 정상에는 마치 닭의 벼슬처럼 생긴 닭벼슬바위들이 있다. 이곳은 마치 봉우리의 최정상임을 드러내려는 듯 하늘을 향해 매섭게 솟아있다. 오



상학산 닭벼슬바위

죽하면 봉우리 이름도 상계봉이라 지었을까.

상학산의 만덕 쪽 봉우리에서도 다양한 바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곰을 닮은 곰바위, 남성의 성기처럼 솟은 양근바위, 바위들이 마치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웅기종기 모여 있어 이름 붙은 일가바위 등이 그것이다.

상학산 맞은편 능선 아래에는 부부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은 큰 바위도 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상학산 영감, 할망바위다. 그리고 한편에는 늘그막에 얻은 귀한 손주라도 되는 양, 아이처럼 작은 바위가 함께 놓여 있다.

## 북구의 거님길

매끄러운 길과 반듯한 공간들. 회색빛 아스팔트 숲이 되어 버린 도시에서 녹지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구에 솟은 산과 봉우리는 고맙게도 푸른 자락을 기꺼이 내어 준다. 현대의 기술로 갈고 닦은 길이 아닌, 빗물이 적시고 오랜 발자국이 다져 온 길. 흐르는 물이 들려주는 음악 소리와 수줍은 듯 붉게 내려앉는 낙조 빛이 어우러진 거님길들은 자연이 북구에 허락한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이다.

### 산자락이 내어준 쪽빛 숲길, 북구웰빙산책로

북구웰빙산책로는 구포 삼지공원에서 거북바위 입구를 거쳐 운수사, 석불사를 지나 화명수목원에서 금곡 쪽으로 이어지는 4개 구간, 총 22km 길이의 거님길이다. 백양산과 금정산의 산 중턱을 연결한 숲속 길로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쉽게 거닐 수 있다.

북구웰빙산책로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산책로만 조성한 탓에 인공구조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긴 무엇인들 나무의 숨결과 흙의 감촉을 대신할 수 있을까.



북구웰빙산책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전망데크를 만날 수 있다. 탁 트인 산길 아래로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북구의 모습이 펼쳐진다. 북구의 자태에 넋을 잃고 거닐다 어느새 목이 타오는 것을 느낄 즈음, 석불사 입구를 지나 만나는 상학산 약수터는 등산객의 오아시스다.

### 강산과 노을이 만드는 절경, 가람낙조길



부산인재개발원 뒤편 가람낙조길 입구

가람낙조길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화명수목원, 금곡을 거쳐 다시 출발지점으로 이어지는 10km의 순환산책로다. 강의 순우리말인 '가람'과 노을빛을 뜻하는 '낙조'가 더해진 이름 그대로, 가람낙조길



은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곳이자 해 질 녘이면 낙조 빛이 산길 위에 붉게 내려앉는 아름다운 길이다.



낙조 빛이 내려앉는 가람낙조길의 모습

가람낙조길은 화명수목원, 대천천 등의 명소를 이어줄 뿐 아니라 금정산성 서문, 울리바위그늘유적 등 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희망이 머무는 가족산책길의 운동시설은 밤에도 조명이 환하게 빛나 언제나 운동을 할 수 있고, 옆으로는 작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나무다리가 설치돼 사람들의 보행을 돕는다. 화명수목원과 금곡 주공아파트단지 뒤로 조성된 숲속도서관은 맑은 공기를 들이키며 독서에 심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칫 헤맬 수 있는 산길 중간 중간에 동그란 안내표시가 보인다. 먼 가람낙조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미끄러울 수 있는 흙

길 군데군데에는 각목 계단이 자리하고 있다. 가람낙조길 곳곳에 적힌 시와 절쪽 근락지, 연꽃 가득 핀 연못은 산행의 풍류를 더한다.

가람낙조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또 한번 멈추는 곳이 있다. 바로 낙동강 물길이 꼭 한반도 형상과 같이 굽이 흐르는 광경이 펼쳐지는 낙동강 전망대다. 자연이 빚어놓은 정교한 선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절로 감탄이 새어 나온다.

### 도심 속 힐링 산책로, 기차길 숲속 산책길



기차길 숲속 산책길

덕천에서 금곡까지 경부선 철로를 따라 조성한 이 숲길은 철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과 녹지대를 설치하면서 생겨났다. 방음벽과 도로 사이에 조성된 녹지로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

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길이 나기 시작한 것인데,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더 심을 상황이 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철로로 이어지는 지하통로 때문에 끊어진 길은 나무다리를 놓아 다시 잇고, 산책길 전 구간에는 마사토를 깔았다. 야간 산책길이 어둡지 않도록 키 낮은 조명등과 함께 곳곳에 긴 의자와 시벽이 설치되면서 산책로는 한층 고즈넉하고 편안해졌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지나 징검다리로 대천천을 건널 때쯤이면 이곳이 차도와 아파트 단지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잊게 된다.

기차길 숲속 산책길은 그야말로 산책에 최적화된 길이다. 옆으로 난 차도, 철로와 달리 울창한 나무가 햇살과 바람을 막아 주고 배수가 잘되는 탓에 비가 와도 진흙이 엉겨 붙지 않는 마사토가 언제나 쾌적한 흙길을 만들어 준다. 간간이 들려오는 기차 경적은 예쁜 산책로에 울려 퍼지는 연주곡처럼 친근하다.

기차길 숲속 산책길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면 덕천동 성훈강변아파트 인근의 가스충전소 옆길을 찾으시면 된다. 전체 구간을 걷는 데 40~50분 정도가 소요되니 가볍게 거닐기에 안성맞춤인 산책코스라고 할 수 있다.

### 함께할 수 있어 더 아름다운 길, 구포 무장애숲길

도시철도 구남역에 내려 유림아파트 혹은 효림유치원 입구 쪽으로 올라가면 구포 무장애숲길 입구가 보인다. 구포 무장애숲길은 범방산 정상까지 나무데크로 이어진 등산로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유모차 등이 지날 때 자리를 내어 줄 수 있도록 나무데크길에 30m 간격으로 피행공간을 마련한 배려가 돋보인다.

법정경사로를 준수해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숲길은 곧장 난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해서 빠른 산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데 있어 자연과 함께 숨 쉬고 호흡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무장애숲길만큼 매력적인 산행길도 드물다.

무장애숲길의 또 다른 매력은 소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배롱나무와 애기동백 등 계절마다 다른 자태를 뽐내는 야생화들의 존재다. 산을 오르는 거북이의 모습과 꼭 닮은 거북바위, 상모를 쓴 것 같다 해서 이름 붙은 정승바위 등 희귀한 아름다움을 지닌 기암괴석들은 오랜 시간 품어 온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또한, 전망대에 올랐을 때 김해공항과 1,300리를 굽이쳐 흘러온 낙동강 물줄기가 눈에 시리도록 가득 차는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밤에 오르면 볼 수 있는, 별을 흠뻑려놓은 듯 구포의 야경은 무장애숲길이 선사하는 또 다른 선물이다.

구포 무장애숲길



## 병풍암 석불사

금정산 상계봉의 중턱, 병풍처럼 둘러선 암벽 사이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절 하나가 있다. 목조 건물이 주를 이루는 여느 절들과 달리 모든 법당이 돌로 이뤄진 곳, 시간도 땀도 감절로 쏟아부었을 것만 같은 석불사다.

바위와 나무 사이 한 뼘 공간을 내어준 금정산, 손끝에 일심을 실어 부처를 새긴 석공들. 산과 사람이 만든 비경(秘境) 앞에 바람도 잠시 걸음을 멈춘다.

### 바위를 두르고 하늘을 덮다



병풍암을 두르고 선 석불사

나무를 스치고 돌담을 지나 가쁜 숨으로 만덕고개를 오르다 보면 ‘불(佛)’자가 새겨진 바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옆으로 군데군데 쌓인 돌담들은 석불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마다 속삭인다. 이내 절의 입구가 보이는데 싶으면 사찰을 에두르고 있는 거대한 암석과 모습마저 웅장한 범종각이 단번에 시선을 빼앗는다.

상계봉 남쪽 산자락에 위치한 석불사는 거대한 자연 암석과 그로 인한 경관으로 여느 사찰과는 다른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여행잡지에 꼭 방문해야 할 아시아의 비경(秘境)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 배낭맨 외국인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대웅전과 칠성각 사이로 올라가면 20~40m 높이의 직벽 암석에 스물아홉 구의 불상이 정교하게 새겨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사찰 중 최대 규모의 마애불상군으로, 여느 사찰과



산식각 계단에서 내려다보이는 석불사와 금정산



달리 일일이 손으로 아로새긴 것들이라는 점이 그 가치를 더한다.



석불사 마애불상군

산신각을 향해 난 돌계단을 오르면 바위와 바위 사이 좁다란 공간인 해탈문에 이른다. 몸을 옆으로 해야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이곳을 통과하면 탁 트인 사방이 눈에 들어온다. 흐르는 낙동강과 저 멀리 부산 앞바다까지, 부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세상이 보인다고 했던가. 해탈문이라는 이름에서 자못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리라.

## 산신령이 숨겨놓은 보물

창건주 조용선 일현선사는 1909년 전남 곡성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그러다 집안이 보증 문제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잃게 되면서 온 식구가 매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현선사의 나이 고작 열한 살 때였다.

어린 나이에 출가를 결심한 그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불도를 닦았다. 18세가 되던 해, 동래 범어사를 찾기 위해 부산에 온 일현선사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금정산 산신령이 눈앞에 나타나 산자락을 보여 주며, 이곳을 찾아 절을 짓고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튿날, 스님은 꿈속에서 봤던 산을 찾아 나선다. 서면을 지나 초읍 성지곡을 거쳐 고갯길을 걷는데, 저 멀리 꿈속의 바로 그 산이 보였다. 서둘러 능선을 타고 와 보니 웅장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소나무가 뽕뽕이 들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경 중의 절경이었다. 큰 바위로 통하는 암굴을 발견한 스님은 그곳을 거쳐 삼아 불도를 닦다가 1930여 년 즈음 비로소 석불사를 창건하기에 이른다.

## 그리움을 아로새기다

1950년에 조성된 석불사 만다라 마애불군. 이곳에는 한 여인에 대한 석공의 깊은 사랑이 새겨져 있다.

석공 배판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한 석공을 만나 스승으로





사찰 뒤로 펼쳐진 비경으로부터 일현선사 설화와 석공의 이야기, 그리고 사이의 말춤에 이르기까지. 이 사연 많은 사찰은 실로 매력이 넘쳐 흐른다.



3층 석탑 탑신에 새겨진 금강역사

● **석불사** : 북구 만덕고개길 143-79 / 051-332-1690

## 화명수목원과 화명생태공원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늦은 아침, 숲속에서 읽은 책 한 권에 마음이 편안해 진다. 잔디밭 위에 도시락을 펴고 앉으니 나무 위로 도토리들 들고 후다닥 사라지는 다람쥐가 보인다.

색색이 흐드러지게 핀 장미를 담아 보려 열심히 셔터를 눌러 보지만 도도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사진에 담기는 역부족이다. 자전거가 갈대숲 사이 오솔길을 지나자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칼을 쓸어 넘긴다. 거리 곳곳에 건축상을 수상한 감각적인 주상복합건물 등이 자리해 도시 경관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어느덧 붉은 낙조 빛이 강 위로 내려앉을 즈음, 그림 같은 풍경을 두 눈에 가득 담는다.

유럽 어느 마을의 일상이 아니다. 금정산의 녹음과 낙동강의 노을, 색색의 장미꽃밭을 품은 화명의 이야기다.

신도시의 면모와 고즈넉한 여유,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부산어촌민속관 등의 체험시설까지 두루 갖춘 화명은 쇼핑, 나들이, 교육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지역이다.

### 숲이 들려주는 푸른 속삭임, 화명수목원

화명수목원은 북구 화명동과 금정구 금성동의 경계를 이루는 금정산 자락에 있는 부산 최초의 공립 수목원이다. 서부산이라면 화명역에서부터 애기소를 지나 올라가는 길을, 동부산이라면 온천장에서부터 금정산성길을 통하면 된다.

화명수목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북구

가 사랑하는 천혜의 녹지다. 정문을 통해 수목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숲 전시실 건물이 방문객을 반긴다. 숲 전시실은 나무들의 향기를 직접 맡아볼 수 있는 공간과 시청각자료실, 목공예품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어 오감으로 숲과 교감할 수 있다.



화명수목원 전시온실 외관(우)과 내부(좌)

나란히 선 대천교와 아치교는 공원의 경관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꾸며주는 다리들이다. 다리를 건너면 중앙광장이 나오는데 왼편에 유리로 만든 커다란 건물, 전시온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커피, 바나나 등의 아열대 및 난대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금세 김이 내려앉은 안경을 닦아가며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식물들이 뿜내는 이국적인 자태에 취해 어느 열대 국가의 숲속을 여행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전시온실 뒤편으로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어린이 정원과 토끼,

염소 등의 초식동물들을 볼 수 있는 숲속동물마을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오작교를 건너 수서생태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아름다운 연못과 수생식물을 볼 수 있고, 옆으로 난 야생화 관찰길은 녹음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버드나무 쉼터, 침엽수원, 활엽수원, 참나무 쉼터에선 나무들의 숨결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저게 뭘 나무지?’라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먼나무를 바라보며 한껏 웃고 나면, 어느새 나무줄기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가지를 부르르 떠는 배롱나무는 여름과 가을의 경계에서 진분홍 꽃송이들을 흐드러지게 피워내고, 하트 모양 꽃잎이 사랑스런 계수나무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향기를 흩뿌린다.

수목원 구석구석 숲속도서관이 마련돼 있어, 산책 하다 잠깐 쉬어 가며 책을 펼쳐 보는 것도 운치 있다. 원만한 산소로 머리가 맑아지는 이 조용한 숲이야말로, 도서관이나 독서실보다 책을 읽기에 더욱 알맞은 공간일지 모른다. 이어 오르막길을 따라 수목원 꼭대기의 숲속전망대에 이르면 화명동 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피크닉 테이블과 정자에서 몸과 마음을 누이는 사람들,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누워



화명수목원 숲속도서관



편안한 한때를 즐기는 연인들, 개울가에 발을 담그며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화명수목원은 소중한 사람들과 저마다의 방법으로 쪽빛 같은 푸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 일상을 자연 빛으로 물들이다, 화명생태공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지칠 때, 닳친 일들을 잠시 잊고 잔잔히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걸어보는 건 어떨는지. 걷고 싶어졌다면 화명생태공원길을 권한다. 낙동강변을 따라 조성된 도심 속 자연 공간인 이곳은 북구보건소에서 낙동강변 방향으로 걷거나 2호선 수정역에서 하차하여 10분 정도만 걸으면 닿을 수 있다.

화명생태공원은 거닐며 그 풍경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정화되는 공간이다. 사람 키만 한 갈대숲 사이로 높다란 아파트가 고개를 내밀고 강물 너머로는 대동화명대교가 기다랗게 펼쳐져 있다. 공원의 모든 길은 각기 다른 저마다의 색을 뽐낸다. 강 위에 피어난 연꽃 사이를 거닐다 갈대숲 따라 난 오솔길로 걸음을 옮기면 흙 내음 가득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120여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는 휴일에도 쉽 없이 운영한다. 공원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를 타며 낙동강 바람을 가르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다. 또 공원 곳곳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주말이면 경기를 하러 모이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친다. 어린이용 놀이기구와 함께 마련되어 있는 야외수영장은 여름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풀장으로, 겨울엔 눈썰매장으로 사람들을 맞

아 들인다. 화명생태공원 내부를 지나는 남해고속도로 아래로는 도심 속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화명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2020년에는 ‘금빛노을브릿지’의 완공으로 화명생태공원과 구포시장을 350m에 달하는 스카이워크로 연결할 예정이다. 부산 최장 스카이워크가 북구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구포시장에서 맛있는 국포국수를 맛보고, 다리를 건너 화명생태공원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진다.

화명생태공원은 매년 개최하는 낙동강구포나루축제의 행사장이기도 하다. 더불어 가야국 시조인 김수로왕과 그의 아내 허황옥의 사랑을 주제로 한 허황후 신행길 축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밀 파종 체험 등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명생태공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





화명생태공원 연못의 일몰 풍경

다. 바로 저녁마다 붉게 물드는 일몰 풍경이다. 매일 저녁 서늘 하늘의 낙조 빛이 낙동강과 밀밭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절경이다. 일몰 후, 날이 좋은 저녁이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드리운 가로등 불빛이 낙동강과 교감하며 더욱 밝게 빛난다. 덕분에 공원은 밤중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적막함을 지운다.

봄이면 유채꽃의 화사한 물결로 가을이면 코스모스의 일렁임으로 가득 차는 화명생태공원. 새로운 계절이 찾아들 때마다 그 계절의 빛을 담백 머금어 우리를 위로하는 이곳은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다.

### 향기로운 아름다움을 피우다, 화명장미공원

도시철도 화명역에서 도보로 5분, 화명신도시의 뾰뾰한 빌딩 숲에서 한발만 나오면 보이는 화명장미공원은 그야말로 도심 속 숨겨

진 보석 같은 공간이다. 5월에서 6월로 접어드는 초여름 즈음이면 무려 1만 여 그루의 장미가 활짝 피어난다. 빨강, 노랑, 분홍. 도무지 색만으로 나눌 수 없는 저마다의 자태들. 모니카, 블루문, 화이트크리스마스를 비롯한 49종의 장미를 하나하나 만나고 나서야 각기 다른 향기를 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공원 안에 있는 너른 연못의 나무데크 위에 올라서면 연못을 수놓은 예쁜 연꽃들을 제법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직선으로 때론 곡선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난 산책로를 가로지르면 나무 잎사귀들이 고마운 그늘을 드리워 준다.



화명장미공원

- 화명수목원 : 북구 산성로 299 / 051-362-0261
- 화명생태공원 : 북구 화명동 1718-17 / 051-364-4127
- 화명장미공원 : 북구 화명동 2280